**데이빗 월커슨 목사님 2009년 11월 메세지 모음 입니다.**

****

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하나님께로 나아감

기도가운데 주님을 구하며 나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답변은 이것입니다: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엡3:12)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성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인즉,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것도 단지 일 년에 한 번 하나님과의 접촉이 허락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 마음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상태로 시은 좌에 다가갔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추악함과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살려고 왔다. 너는 내게 너의 더러움이나 낙심을 숨길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너를 택했고 이제 너의 몸을 나의 집, 내가 살 곳, 내 거주지로 삼으려고 한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가 모든 방을 깨끗이 치우고 청소할 것이요, 네 마음을 나의 신부답게 예비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옆에 앉힐 것이고 너로 하여금 나의 보좌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오도록 권고할 것이다. 나는 네가 나에게 권능, 은혜, 능력,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하기 바란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접할 수 있도록 내가 천국을 네 영혼 안으로 가지고 왔다. 네가 부요하나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네가 내 모든 영광의 상속자이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유일한 이유는 성령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지속적인 내재와 권능으로만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유지 됩니다. 당신은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입구들만 지키려고 애써도 신경쇠약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날아드는 먼지와 더러움을 막으려다 실패한 후 낙담할 것입니다.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며 빗자루로 쓸고 광내고 하면서 번듯하게 보이게 하려다가 지쳐 버릴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이 사실에 기뻐해야합니다 -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항상 계시니,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마음 넓히기

전도자로 활약했던 죠지 화이트필드와 죤 웨슬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외 집회나, 길거리, 공원이나 감옥에서 수천 명에게 설교했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교리적 문제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양 교리진영이 서로의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악의에 찬 말이 오가고 두 사람의 추종자들이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논쟁을 벌이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화이트필드의 한 추종자가 와서 그에게 “죤 웨슬리를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웨슬리씨가 그런 오류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이트필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씨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너무도 높은 그리스도의 보좌 근처에, 주님에게 너무도 가까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 “마음 넓히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강퍅하다고 비난했고 자기의 설교를 비웃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자신이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 졌으니,”(고후6:11)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넓혀주실 때, 홀연히 많은 한계와 장벽들이 제거됩니다. 더 이상 편협한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자석 같은 힘에 의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 이끌리어 올 것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은 심령의 온화함이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들 중에 죄로 인하여 실족하였거나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삶에서 잘못 된 점을 지적해주고 싶은 유혹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통 받는 사람들이 온유하고 온화한 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 주셨던 바로 그 영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여생을 위하여 마음으로부터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 모든 편협함을 제하여 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긍휼의 영을 원합니다.... 실족한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용서의 영을....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주시는 주님의 회복의 영을....”

“나의 마음속에서 모든 배타성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용량을 늘려주십시오. 내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접할 때에 그를 심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들 안에서 남을 사랑 할 수 있는 불을 지피게 하여 주십시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그분의 교회는 배교와 거짓 교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들, 즉, 바울과 사도들이 세운 사도시대의 조직체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성장과 불변하는 믿음에 유익이 되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딤후4:3-4)는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예견했던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은 후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죽은 후에 교회에는 사악하게 그릇된 음모가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낯선 교리에 유혹당하고 과학과 철학이 그리스도복음의 진리를 잠식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결성에 대해 말 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5:25-27).

하나님은 신앙을 저버리는 교회에 대해 크게 염려하시지 않습니다. 배교하는 일들 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이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강이 변절하여 사해가 되어버린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죄악과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내어 줍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생명이 샘솟게 합니다.

죽어 생명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은 단지 자투리에 불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들판은 곡식이 익어 추수하게 되었다. 아직도 일꾼들이 추수할 시간이 남아 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령이 추수할 곡식이 시들도록 내버려두고 떠나버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드러내시고, 사랑을 호소하시면서 배교한 자들을 포함해서 길 잃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은 우리에게 심판을 구하지 말고, 요새를 수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때입니다. 그분은 준비가 되어있는 그릇을 모두 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든지 어떠하든지 아직도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준비하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 준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 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마24:44-51).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해 보십시오. 한 종은 충성되다 하시고 다른 종은 악하다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눈에 그 다른 종을 악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에 의하면 그것은 그가 마음에 생각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은 그러한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팔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한 것에 유의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갑자기 또는 예기치 않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 세대에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은 명백하게 믿는 자의 한 부류입니다. 아마도 사역자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깨어”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4)고 명령을 받은 자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느슨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종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확신하게 되면, 그는 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동료 종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 애쓸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집이나 직장, 교회에서 일치감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도리어 동료 종들을 때리고, 비난하고, 불만을 품고, 그들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런 종은 자신의 정욕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으며 두 개의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원수의 거짓말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 사탄은 이러한 거짓말을 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는 지금 포위당했고 빠져 나갈 길이 없다. 너보다 위대한 종들도 이보다 열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해버렸다. 이제 네가 무너질 차례다. 너는 실패자다 아니면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뭔가 잘 못 되었고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만들었다.”

히스기야는 시련가운데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납게 대어드는 목소리, 용기를 꺾고 협박과 거짓말을 퍼부어 대는 음성을 멈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주님이 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자, 이제 네 문에서 사탄에게 말하여라, ‘너야 말로 멸망할 자 이다. 네가 여기로 왔던 그 길로 네가 또한 나갈 것이다.’”

히스기야는 원수의 계략에 거의 넘어질 뻔 했습니다. 실상인즉, 만일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위기에 빠진 순간에 믿음과 기도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힘을 길어내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에 조준하여 공격을 일층 강화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산헤립에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왕아, 네가 나를 모독한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그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바로 그 밤에 초자연적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왕하19:35).

오늘날 믿는 자들은 언약위에 서있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위에 서 있습니다. 그 피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 시험,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전투에 대해 승리합니다. 당신은 최근 마귀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신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당신의 모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도? 당신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도? 만일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앞서 모범을 보였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가련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평안과 성령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분의 평안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아마 “나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없다. 나는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은 것들과 힘든 싸움을 해왔다. 나의 믿음은 너무 연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분의 평안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 아무도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권리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래지 않아 저주를 내 뱉을 복음 사역자에게 그의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으나 또한 그분을 부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심이 강하였고 항상 인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분이 영광 중에 그의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를 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보다 더 의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진노하였습니다. 도마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심에 빠졌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너무도 믿음이 부족하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놀라시고 곤비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가장 고통당하던 순간에 그들은 모두 그분을 저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조차도 제자들은 그것을 더디 믿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혼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그들은 혼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은 이제껏 그들이 갖고 있던 일체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두려움, 불신, 분열, 슬픔, 혼동, 경쟁심,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문제투성이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선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와 품꾼들이었고 순박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심중에서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들 각자가 성령께 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약속은 그분의 평안이 전부였습니다. 그 평안의 충만함은 오순절이 되어야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우리에게 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원하면 할수록 성령이 당신에게 그분을 더욱 더 보여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평안을 더욱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전 세계적으로 만물이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중동사태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집중되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시33:18).

우리 주님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모든 동작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시선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안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은 자신의 영적 몸인 각 지체의 고통과 필요를 응시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엇이든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그분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10:28). 세상의 큰 전쟁들의 와중에서 조차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폭군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초점은 자신의 자녀들의 삶의 모든 상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10:29).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던 당시에 참새는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고 두 마리에 한 페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미미한 생물들 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떨어지다”라는 말은 새의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람어로 이 말은 “땅위에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떨어지다”라는 말은 작은 새가 미세하게 폴짝거리는 모든 동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눈은 참새가 죽을 때 그것을 주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앉을 때에도 보고 계신다. 참새가 나는 것을 배울 때 그 새는 둥지에서 떨어져 땅위에서 폴짝거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 새가 겪는 모든 미세한 어려움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새의 삶의 모든 세밀한 부분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마10:31). 진실로 그분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온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세어놓으시고, 로마 제국의 모든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은하계가 각각의 궤도를 유지하도록 하시는 그분이 시선을 당신에게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묻습니다. “그분께 너희는 더욱 더 귀하지 않느냐?”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9일 목요일

놀라운 평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뿐이 아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30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방금 그분은 열두 제자들에게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요14: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바로 그 시각에 일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이미 유다를 자기 편으로 편입시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능력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마귀의 충동을 받은 군중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곧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자, 사탄이 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투쟁에 대비하여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들의 손에 곧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탄이 자신의 평안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그분을 괴롭히고 낙심하게 하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붕괴시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피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혼란 속에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없다”고 생각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네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다. 와서 나의 평안을 마셔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직면하여 헤쳐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불안정하고 앞날은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느 길로 돌아서도 당신은 더욱 스트레스와 혼동과 곤고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마치 돌풍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듯 보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마치 현대판 욥을 보듯 많은 시련을 견뎌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난 가운데에서 성령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당신을 세례주시기를 구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에 빠졌다. 그런데도 그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오래 전에 포기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믿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평안인가! 그것은 이해의 범주를 넘는 것이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8일 수요일

구름같은 증인들

히브리서 12:1 말씀은 이세상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구름 같은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증인들 무리가 현 세상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노아시대 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소돔의 죄를 능가하는 죄를 범하는 인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심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경제는 축복받았지만 사회는 비도덕적이 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여 세속주의자들 조차도 우리가 어쩌면 이토록 타락하였는가 하며 통탄합니다. 모든 곳의 크리스천들은 왜 하나님이 이같이 악한 사회에 심판을 지연하고 계시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는 왜 그처럼 끔찍한 악이 활개 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름 같은 하늘의 증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긍휼과 인내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름 같은 증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중의 괴수” 조차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생애와 서신들은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해서 그들을 감옥이나 사형장으로 보내기 위해 끌고 갔던 테러리스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무지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현 세대에 대해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있습니다. 그도 또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인내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애와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가 예수님을 결코 모른다고 맹세하며 그분을 저주한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베드로처럼 아직도 그리스도가 기도해 주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구름 같은 증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전에 마약중독자였던 사람, 알콜 중독자였던 사람, 창녀였던 사람, 동성연애자였던 사람, 갱 멤버였던 사람, 마약 밀매꾼이었던 사람, 살인자였던 사람, 아내를 구타했던 사람, 이교도였던 사람, 관음중독자였던 사람들과 같이 사회가 포기해 버린 무리들의 얼굴 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안에서 죽었고 지금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긍휼과 인내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일치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광적이고 비도덕적인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도 그분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과 인내를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성령이 임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예언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사32:15).

이사야는 “성령이 오실 때는 한때 황량하던 광야가 추수하는 들판이 될 것이다. 죽은 듯한 땅덩이가 갑자기 열매로 가득 넘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추수가 아니다. 열매가 가득한 들판은 더욱 커져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해마다 이 숲에서 수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해서 너희의 비옥함이 더욱 풍성해 질 것이다”라고 말씀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덧붙였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위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사32:16).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성령은 오실 때에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메시지는 사람들 안에 공의를 낳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같은 성령의 단발적인 퍼부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속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부흥은 평균적으로 오년간 직속되며 혼란과 불화를 흔적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나도 소위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몇몇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년이 지났을 뿐인데 성령이 남겨주신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교회들은 죽어있고, 메마르고, 텅비어 있습니다. 한 때 천 명을 수용하던 교회 전들이 텅 빈 무덤들이 되어 단지 오십여 명이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사32:17-18).

공의가 활동하기에 평화가 옵니다. 성령은 모든 동요, 훼방, 정죄를 쓸어내기에 바쁘십니다. 그 뒤를 따라서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때 그들은 쉽사리 그것으로부터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사32:19-20).

성령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웃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또한 적용됩니다. 그것은 이중적 예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인즉, 모든 세대가 성령의 퍼부으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성취하기 원하시는 일에 비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목격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6일 월요일

염려라는 이교주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마6:31-32).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의 미래나 직장이나 어떻게 살아 나갈 것인가 등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마6:34). 이 단순한 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무슨일이 일어날는지, 일어나지 않을는지 생각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너희가 염려한다면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할 따름이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마6:33)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고 계속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계속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에 싸여 있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당황스러워 하지나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마치 하늘에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이 주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모욕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천사들은 그들 끼리 얼마나 곤혹스러운 질문을 주고받겠습니까? “저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는가? 저희들은 그분이 자신들은 사랑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가? 그분은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저희들은 새들과 모든 짐승을 먹이시는 그분이 자신들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지 않는가? 저희들이 만약 그분이 모든 능력과 부를 소유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초조해하고 염려할 수 있을까? 저희들은 마치 그분이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듯이 저희의 천부가 태만하시다고 비난하는 것인가?”

당신에게는 천부가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 하십시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회복 사역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었고, 그 배는 시돈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휘관인 백부장에게 시내에서 친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 받기를 허락하더니”(행27:3).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다른 믿는 자를 회복시키시는 또 다른 예를 봅니다.

바울이 어떤 믿는 자에 대하여 기록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딤후1:16-18).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영적 아들 중 한사람으로서 바울을 깊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였기에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전 시내를 뒤져 결국 그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동기는 단순히, “나의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는 파선의 공포를 겪었고 이제는 사탄과 악전고투 중이다. 그를 격려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복 사역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요즈음 교회에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길잃은 영혼을 구하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등등. 그러나 나는 회복되어 새로워진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훌륭한 치유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울증, 심리적 고민 또는 병든 영은 온갖 종류의 육체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그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회복되고 격려를 받은 영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치유의 향유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러한 회복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그는 밤낮없이 도망 다녀야만 했으므로 지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다윗에게 이르러...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삼상23:16-17).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즉시 그의 영은 소생하여 앞으로 나아 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성경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천사를 보내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를 보내십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2일 목요일

위로와 회복

바울이 의기소침하였을 때 성령은 어떻게 바울을 위로 하셨을까요? 사도가 자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고후 7:6). 디도가 회복된 심령으로 마케도니아로부터 도착하자 갑자기 바울의 마음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를 하면서 기쁨이 바울의 몸과 마음과 영에 물밀듯 흘러들어 왔고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고후7:4).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문제에 당면해 있지만 주님은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디도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내가 사역했던 기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내심이 다하여져서 의기소침해지고 완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번민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이 종들이 고통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건져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무슨 말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바울의 증언에 그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한사람이 너무도 지쳐서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가장 힘든 시기에 처해 있었고 더 할 수 없이 기운이 빠져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는 어두운 구덩이를 완전히 빠져나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도는 사랑받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가 그곳에 도착하여 교회 지도자들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의 교훈을 듣고 교회에서 영적 자각이 일어났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디도는 이러한 격려의 소식을 들고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사도여, 고린도의 형제들이 그들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죄를 제하여 버렸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고난을 경멸하지 않고 도리어 당신의 간증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가 가지고온 이 유쾌한 말이 즉시 바울을 그의 구덩이로부터 들어 올렸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고후7:6). 당신은 여기서 그 예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바울을 회복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위로는 회복된 디도의 영혼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디도가 이번에는 바울의 영혼을 회복시켰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불신의 과도한 위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히3:18-19, 12)

히브리서는 신약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경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그들처럼 타락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악한 불신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은 길고도 끝없는 광야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되돌려 보냈던 불신의 세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도자로부터, 사사들과 레위족속을 무론하고 그들에게 대적하여 자신의 손을 들 을 것이라고 신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부터,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지치고 수척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었고 자신의 정욕에 의해 소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에 대해서만 모든 생각과 관심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비전도,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도, 기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이나, 잃어버린 세상이나 결국에는 친구에게 조차도 무관심해 집니다. 그들은 자신들 삶의 전 초점을 그들의 문제, 고통, 질병에 고정시킵니다. 그들은 연이어 위기를 겪고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갇혀 버립니다. 그들의 나날은 혼동과, 분쟁, 질투와 분열로 채워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양쪽에 벽처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걸어서 통과하도록 하셨을 때, 그들은 춤추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사흘이 지난 후에 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불평하고, 중얼대고 원망하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38년 동안 모세는 이 불신 세대의 모든 사람이 한사람씩, 한사람씩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낭비해버린 사람들을 회고해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신2 참조) 하나님은 그 모든 세월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유예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떤 크리스천은 단지 죽을 때 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성장하고 또는 성숙하기 위하여 아무런 위험도 무릎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불신 가운데서 강퍅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만 죽기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두셨다

히브리서 12:1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들과 더불어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는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단순히 이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벧전3:12)

나는 이 하늘의 증인의 거대한 무리가 우리에게 복잡한 신학이나 교리를 지키는데 대하여 말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간결한 진리로 우리에게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것을 우리 에게 증거 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십자가의 승리를 전파하고, 죄인들의 우리를 거 역하는 일을 참으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를 해야 할 것입니다. (히12:1-2 참조)

-다윗왕은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자신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않으실 것이라고 증거 합니다.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고, 간음한 자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고 아버지께서 그를 마음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빛을 거슬러 죄를 범하였다고 증언 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걸었고, 주님을 만졌으며 그리스도로부터 개인적 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는 죄의식과 정죄 속에서 일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 지만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매일 고통당하시고 고통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을 불렀을 때 그분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지 보여주셨습 니다.

그의 전 사역기간을 통해, 바울은 진정으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환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살전3:3).

우리는 또한 욥의 증언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욥7:17-18, 이탤릭체 저자 임의사용).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에 두고 계실 때, 당신은 자주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인즉, 당신의 시련이 더 길고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이 당신을 더욱 깊이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을 대적 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 대항해서 기치를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적인 안식을 발견합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

모든 믿는 자에게는 사는 동안 또한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궁극적으로 시험하시는 때가 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광야에서 당면했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 놓인 모든 위험을 보고-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들, 고통의 높은 벽들,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영적 세력과 권세들-그리고 우리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자신을 평생에 걸쳐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원수들 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결단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한 번에 한 문제씩 다루는 믿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평생의 믿음, 전 생애에 걸친 결단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영혼에 평온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더욱 크시다. 그분은 어떤 것이든, 모든 고통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고 단번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 평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기 백성이 불신에 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아마 여러 번에 걸쳐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부터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주제를 둘러싸고 너무도 많은 신학적 설명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인위적으로 한 순간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라고 반복함으로써 만들어 낼 수 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대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행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속으로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진정 믿고 싶습니다,”라고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 하셨던 것,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은 의문을 품지 않고 또는 경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순종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혼동하지 않고 명백히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면,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욜3: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엡6:10).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6일 금요일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7).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이 구절을 매일 인용합니다. 한데 바울이 말씀하는 문맥상 보면 이것은 더욱 깊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구절 앞에서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15:54-55).

바울은 하늘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 웅변을 토했었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후5:1-2 이탤릭체 저자임의 사용).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5:8).

바울에 의하면, 하늘-주님의 존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내게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는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다수의 무리가 모두 모였을 때, 나는 하늘에서 수백만의 영광을 입은 자녀들이 옛적 성전에서 그러하였듯이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며 거대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을 그려봅니다.

다음에는 순교자들 순서입니다. 일전에 땅위의 공의를 부르짖던 그들이 지금은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칩니다. 모두가 “승리, 예수안의 승리”를 외치며 기쁘게 춤을 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힘찬 함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온 나라들과 족속으로부터 온 많은 무리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아마 당신에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 신실한 사도가 하늘로 이끌려 갔을 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 할 말...”(고후12“4)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곳에서 들은 말로 인해 휘청거렸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바로 그가 들었던 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들의 완전해진 몸으로,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전야제를 본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소리였기에 바울이 들을 수는 있었으나 흉내 낼 수는 없었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5일 목요일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평강이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14:27).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평강이 된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과거 3년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목격하고 경이로워 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항상 평온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적인 일로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 그분은 흥분하셨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평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셨고, 시험에 직면하여서 평화로우셨으며, 거절당하고 조롱당할 때에도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에도 그분은 갑판에서 주무실 정도로 평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에 찬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높은 벼랑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동요하지 않고, 평강으로 가득 찬 채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제자들은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폭풍가운데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을까? 저 무리들이 낭떠러지로 던져 버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 뱉어도 그분은 전혀 대응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바로 그 평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경이에 차서 서로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갖고 계신 바로 그 평강을 갖게 된다는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덧붙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요14: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감각이 마비되고 이 세상을 벗어난 환각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질로 마음의 평강을 사려고하는 부유하고 유명한 자들의 일시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평강,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강을 주시기로 약속했을 때 그것은 마치 그분이 그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직면해야 할 시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 너희는 내가 곧 겪어야할 십자가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 마음을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지속되는평강이 없이는 다가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 평강을 소유해야만 한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4일 수요일

머리카락을 만져 보아라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를 곤고하고 두려운 시간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민족들이...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눅21:26, 25).

이러한 재난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두려움에 대한 그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참새를 돌보시는 모습과 우리 머리의 머리카락 한 올 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이 모습들은 예수님이 그것들을 주실 때의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분은 열두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성읍과 마을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막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종류의 병과 질병들을 고치는 권세를 부여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흥분된 순간이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직후 그들의 주인은 이처럼 두려운 경고를 하였습니다.

“주머니에 아무 돈도 가지지 말라. 그리고 집도, 잠들기 위한 지붕조차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는 이단이라거나 마귀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매 맞고 재판관 앞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던져질 것이다. 너희는 미움을 받고 경멸당하고 배신당하고 핍박당할 것이다. 너희는 돌에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도망 다녀야 할 것이다.“

자,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휘둥그레 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틀림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렇게 의아해 하리라고 상상해 봅니다. “무슨 사역이 이렇단 말인가? 이것이 나의 미래란 말인가? 이것은 내가 들어 본 중에서 가장 침울한 인생 전망이로구나.”

한데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마10:26,28,31).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항상 참새를 지켜보신다. 그분의 눈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너희를 얼마나 더 항상 지켜보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이 밀어 닥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리고 네가 겪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여기 안식하고 확신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창문 밖의 작은 새들을 보아라. 그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져 보아라. 그 후에 내가 네게 말한 것을 기억하여라. 저 작은 새들이 너희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네 머리카락은 그분에게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한 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분의 눈은 언제나 너를 지켜보신다. 네 모든 동작을 보시고 들으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

우리 아버지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3일 화요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는 험악한 상태에서 갇혀있었습니다. (빌1:13-14 참조) 그는 양발이 한쪽씩 병사들에게 쇠사슬로 묶인 채 24시간 친위대 병사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 병사들은 무례하고, 강퍅하며 수시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산전 수전을 다 겪었기에 그들의 임무 상 모든 옥에 갇힌 자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죄를 범한 범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당했을 모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자유로운 시간이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친지의 방문은 철저히 감시당하였고 아마도 간수들이 바울의 대화를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 경건한 사람의 위신은 완전히 발가벗겨지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은 아주 활동적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 대로와 공해를 통해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 전체에 걸쳐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방문하는데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쇠사슬에 매여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퍅하고 불경스러운 자들에게 묶여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는 “왜 하필 나란 말인가”하며 진부한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되 뇌이며 병적으로 비뚤어진 감정으로 돌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나는 여기 묶여있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영혼들을 추수하며 기뻐하는데 내 사역은 중단되고 말았다. 왜?”라는 생각에 온전히 휩싸여서 자기 논리에 따라 결국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울증에 빠져들어 절망의 구덩이로 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가져다 드릴 것인가? 내 시련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하나님의 종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현재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상태로 죽게 될 확률이 크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명하신 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크게 높일 것이며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동안 세상에 간증이 될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1:20).

바울의 태도는 우리가 우리의 불행과 근심의 어두운 구덩이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불안하게 기다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낭비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련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과 기쁨을 완전히 놓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1:12).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또는 내가 내 미래 때문에 낙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사역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나는 쇠사슬에 묶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

2009년 11월 2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빌2:16).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존전에 서고 구속의 비밀들이 밝혀지는 날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이 우주의 모든 신비의 베일을 벗기고 그 배후에 있는 자신의 권능을 보여줄 때 불타오를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세상의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것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자원들, 수호천사들, 그리고 항상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위엄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내내, 나의 전사들이 네 주위에 진치고 있었고, 강력한 사자들의 전 군대가 너에게 배정되어 있었다. 너는 결코 사탄으로 부터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다. 너는 전혀 너의 미래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었다.”

그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실 것 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하늘 아버지의 위엄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며 갑자기 진리가 우리에게 전력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이분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진실로, 가장 위대하신 ‘스스로 있는 분’”.

‘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씀을 밝히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는 주님의 존전에서 “나는 어쩌면 그렇게도 눈이 멀었었단 말인가? 왜 나의 주님의 목적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을까? 나의 모든 근심과 의문들은 헛된 것이었다,”라는 생각에 잠겨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그날 내 눈이 활짝 열렸을 때 기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고, 또 내가 의심으로 가득 찬 채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앎으로 모든 계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고통에 대한 모든 반응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빌3:13). 한마디로, 그는 먼저 자신의 과거를 주님의 손에 내려놓지 않고는 미래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David Wilkerson